

이세준 개인전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에 부처  
글.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딩)

이세준 작가는 천장을 가리키며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천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천장이 있어서 바로 내 머리 위에 지금 있는 이 천장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용어예요. 저는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수많은 과정들과 행복, 눈물, 이별과 배신 등등 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비로소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물에 붙인 이름들은 얼마나 추상적인가. 그리고 그 이름들은 세상을 참으로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그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세준 작가와 대화를 할 때 뭔가를 이야기 하면서 다소 장황해 보이는 수많은 설명을 하는 모습이 그다지 생소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시장에서 만나는 이 작가의 수 많은 이미지들의 뒤얽힘을 들여다보면서 이 많은 사물과 사람들, 식물들, 색채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왜 이런 방식이 만들어지는지 조금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의 세계관은 작업 속에서 뒤얽힌 색채들과 대상의 이미지 개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해 보인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협소하기도 하다. 이들은 이세준 작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계이며, 그의 주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번 전시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작업실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작품들이 손상되는 경험을 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은 자신의 작가 인생 전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꽤 심각한 상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중에 가장 초긍정 마인드를 지녔다고 여겨도 과언이 아닌) 작가 특유의 긍정적인 성향으로 이를 잘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캔버스 표면의 그늘음은 새로운 색채로 입혀지거나 그늘음 자체를 표현하는 지침이 되었다.

작가의 작업에 대한 태도는 평면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이 동시에 드러난다. 페인팅 화면 속에서 사용하는 색채들은 한꺼번에 표면 위로 차올라 오고 표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 한 화려한 색상이며 채도가 높은 톤이다. 채색 방식도 그림 속에 보이는 이미지의 공간성 보다는 표면의 색채를 통하여 대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풍경의 순서대로 색채를 겹치면서 쌓아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메꾸어 나가는 식이다. 이는 색채와 형태를 분리시키면서 어느 순간 전체적인 원근감이나 환영적 공간감을 상쇄해버리며 화면 전체의 중심 이미지나 색채 또한 뒤섞어 버리는 효과를 가진다. 캔버스는 특히 거대한 풍경을 그릴 때는 공간을 휘젓고 있는 구성을 보인다. 공간 전체를 휘감거나 둘러싸는 캔버스의 배열은 지금의 공간에 끼어 들어온 같은 시간대의 전혀 다른 이질적 공간처럼 현실 세계 속으로 끼어든 끌려주된 풍경으로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곤 하였던 것이다.

이세준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으로서 그려진 것들은 소외된 것, 버려진 것 등이 부유하는 늪지대와 숲 속,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주의 모습, 그리고 이 속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 뭔가를 찾고 있는 작가 자신의 모습 등 그의 작업을 들여다 보고 이미지를 읽는 우리는 결국 이세준 작가를 들여다보게 되는 듯 하다. 하지만 우리도 그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와의 공통 분모를 조금씩 발견해가며 약간 다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는 것일 뿐, 사실 이런 어지럽고 정신 없는 세계는 우리들의 세계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